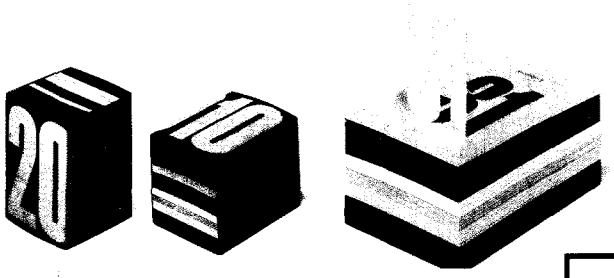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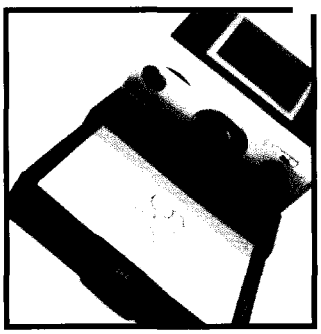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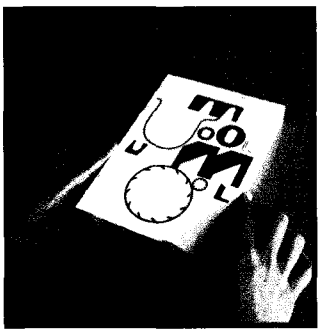
삼원페이퍼 Curiosity Lab

그래픽 실험실 2010







친환경 브로슈어,
독특한 소재의 최신 트랜드 선봬

서울 중곡동 삼원페이퍼갤러리에서 7월 3일까지 열리고 있는 'A Designer's first choice _ Curiosity Lab_그래픽 실험실 2010'이 독특한 소재와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선보이며 관람객의 호응을 받고 있다.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수집한 레터헤드, 패키지, 예뉴얼 북, 카탈로그, 캘린더, 친환경 브로슈어, 카드 등을 전시하고 있는 이번 전시회와 관련, 삼원페이퍼갤러리의 관계자는 매일 수많은 그래픽 물과 새로운 트랜드의 범람 속에서 고민하고 있거나 실험적이고 현란한 디자인 이상과 실무의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 사이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인쇄 및 출판, 디자인 관계자들을 위해 다양한 인쇄기술과 소재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기획의도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특히 많은 호응을 받은 작품으로 '이탈리아 FEDRIGONI의 2010년 캘린더', 'WAUSAU PAPER의 Paper promotional application' 등이 관심을 모았다. FEDRIGONI의 2010년 캘린더는 시각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수단으로서만 인식되었던 종이를 새롭게 해석해 종이의 유연성을 새로운 그래픽 물로 재창조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WAUSAU PAPER의 Paper promotional application'도 세련된 상업적, 기능적 디자인 면모를 보여주었으며 이와 더불어 실험적인 디자인,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실제 마케팅으로의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이 개최되어 전시회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실험적인 차별화를 추구하는 디자이너들을 위해 아트디렉터 김영나와 조현열 작가의 세미나가 열렸으며 그보다 앞선 5월 20일에는 Special Portfolio Binding의 주제로 재미있는 바인딩을 만들어 보는 유료 워크숍도 진행되었다.

특히 18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룬 세미나에서 강연한 김영나 아트디렉터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며 2008년 한국 차세대디자인리더로 선정된 실력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세미나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모처럼 참신하고 다양한 기획으로 다채로운 세계를 접할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역시 세미나를 연 조현열 작가도 뉴욕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그는 이미지, 언어 그리고 그래픽 형태의 관계를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관찰, 재해석한 독창적인 작품을 내 놓았다.

삼원페이퍼갤러리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참신한 기획과 다양한 소재를 찾기 위해 애쓰는 편집디자이너들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와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